명품 순례길에서 만난 이

밤새 폭우다. 새벽엔 그 정도가 심하다. 7월 5일, 억수 장맛비가 참으로 고맙기는 한데, 우리 순례길엔 근심꺼리다. 집안에서 기다리기 조급해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갑자기 빗방울이 잦아든다. 웬일인가! 이 비가 여기서 그쳐 버리려나? 고법사님의 기도발이 쎄긴 쎈 모양이다. 덕지사 신도회가 벼르고 별러서 떠나는 신심의 순례를 두고 빗줄기를 붙들어 매는가! 명봉산 부처님 가피지묘력이 위력들 보이신 게다.

8시 정각, 신도회 소속 열네 분을 싣고 버스는 떠난다. 비 걱정도 가셨고, 영험한 염불·기도를 한뜻으로 올린다. 법등 고법사님 집전에 맞춰 다라니와 반야심경 그리고 발원까지 드리고 나니, 한 점 불안도 없다. 덕지사 출발하자마다 여러 신도분들이 준비해 온 간식들이 쏟아진다. 떡이며 음료수, 과일과 양파즙. 빵과 커피. 언제 이렇게 장만하셨을까! 보문성 보살이 연신 들어 옮기느라 앉아 있기가 어렵다. 총무님은 커피 만드는 자격이 있는지라 여기저기 커피 배달로 분주하다.

청북이 교통 좋은 곳이다. 1시간 딱 지나자,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 부처님이시다. 여기가 이렇게 가까워졌다니……. 언젠가 와 본 게 틀림없는데, 오르

는 길과 주변 풍광이 너무 낯설다. 정갈한 풍치가 더없이 아늑하다. 예전엔 꽤나 힘들여 올랐던 것 같건만, 전혀 힘들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쉽다. 10분이 채 안 걸린 것 같다.

세분 서 계신 부처님의 상호는 역시 세계 1위의 편안함을 준다. 누가 모나리자를 이 부처님께 비하랴? 살구씨 모양의 눈매는 통쾌감을 자아내면서 그 살아계신 미소를 한껏 내려 주신다. 꿈틀 대는 옷주름은 서산에서 밀려드는 한자락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다. 가운데 계신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여래이시다. 그 옆에 서 계신 분은 바로 우리네 조상님이시고 어버이를 떠올린다. 또 한분 옆에 앉아 반가사유를 하고 계신 분은 미륵부처님이시다. 한 손을 턱을 받친 채, 깊은 명상에 든 분이다. 그 웃음은 당장 소리를 내면서 뛰노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려 주신다. 백제는 이토록 낭만의 세계였던가 보다.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뜨는 방향을 따라 세분 부처님의 미소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느낌을 달라지게 한단다. 사계절마다 또한 그 웃음소리가 변하는 것도 신비한 일인데, 올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 질 때 꼭 다시 한번 와 뵈리라. 우리 일행은 연신 합장 반배로 부처님 전 기도를 올린다. 그 무렵 사시불공을 하기 위해 근처 절에서 행자스님 한분이 염불을 시작하신다. 1500년 전에도 이렇게 울려 나갔을 목탁 소리를

뒤로 하고 산을 떠난다.

다시 시원한 버스를 타고 전문 바리스타의 냉커피를 먹자는데, 1시간도 채 안 돼서 국립 부여박물관이다. 고법사님은 다 볼 수 없어도 백제 금동대향로만은 꼭 보라신다. 그런데 박물관을 와 본 지 얼마 만인가? 학생 시절 이런 데를 왔던가? 그런데 역시 국립은 다르다. 냉방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나라가 잘 살고 볼 일이다. 이 커다란 시설을 얼어 터지도록 춥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피서를 어디 딴 데로 갈 필요가 없어 보인다. 잡념에 빠질 겨를도 없이 웬 향로를 이토록 기가 막히게 깎았단 말인가? 돌아가며 자세히 볼수록 혼줄이 나갈 것만 같다. 어찌 이렇게 세밀한 조각을 옛날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받침은 용이고 뚜껑은 봉황이라.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다섯이고 별별 요상한 새와 짐승이 마흔둘, 또 다른 열일곱 명의 사람들, 일흔두 군데 산봉우리...어찌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으랴? 우리나라 옛 분들에게 고개가 절로 숙여질 뿐이다. 호텔 못지 않은 이곳 국립박물관을 나와 근처에 있는 연잎밥 식당에서 점심을 들었다. 아니 팽성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공양을 받았다. 잘 먹고 나니 바로 옆에는 궁남지이다. 넓고 넓은 연못에는 대형 연꽃들이 저마다 막 피어나기 시합이라도 하는 양, 색깔별로 봉우리가 한창이다. 무더위

가 한창인 연못길로 한바탕 눈잔치를 한다. 아미타 극락세계를 여기서 만난 것이다. 신도들은 저마다 사진 찍기에 바쁘다. 이 한철이 지나고 나면 볼 수 없는 장관이기에....

다시 1시간을 채 달렸을까? 버스가 빠른 것인지, 마음이 느긋해진 것인지, 금방 국립 전주박물관이다. 오늘 순례길을 명품이라 이름 한 것은 아마도 국립으로만 돌 수 있어서였나 보다. 여긴 화장실도 널찍하고 에어컨은 춥고 사람은 이따금씩 마주치는 세상에 없는 피서지이다. 아! 여기에 보물단지가 또 하나 있다. 바로 금동 금강경판이다. 얇은 동판에 금강경 글씨를 눌러 새겨서 사경을 하고는 순금으로 도금을 한 것이다. 책장처럼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 수가 22장이다. 펼쳐 놓으니 4미터는 되어 보인다. 이 정교한 작업을 요즘 과학시대라고 재현할 수 있을까 싶다. 종이 사경은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보물은 전주박물관에서 처음이다.

오늘 귀중한 국보를 세가지나 볼 수 있는 법석을 마련하신 덕지사 고법사님께 감사 드린다. 전체 일정과 비용을 모두 부담한 덕에 너무 쉽고 편안하게 명품 순례를 마친다. 저녁 공양도 부담하시고, 특히 쉽게 맛볼 수 없는 매운탕 명품점까지 선보여 주시니, 다들 만족이다. 우리 덕지사와 신도회의 무궁한 발

전을 부처님 전 간절히 발원해 본다. 나무석가모니불!!!